2017년 하반기

미국
시카고
출장자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

Ⅰ. 현지 체류정보 ························· 01

Ⅱ. 미국 개황 ································ 10

Ⅲ. 일리노이 개황 ························· 12

Ⅳ. 미국 경제동향 ························· 15

Ⅴ. 일리노이 경제동향 ················· 19

Ⅵ. 미국 수출입동향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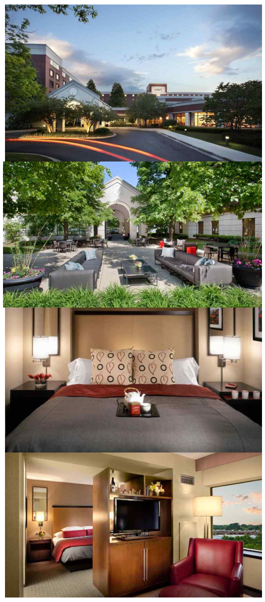
Ⅶ. 한국과 미국 경제교류 현황 ·· 25

Ⅷ. 무역관 안내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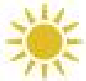
Ⅰ. 현지 체류정보

❑ 호텔

호 텔 명	Hyatt Regency Deerfield
주 소	1750 Lake Cook Rd. Deerfield, IL 60015
전화번호	1-847-945-3400
홈페이지	https://deerfield.regency.hyatt.com
숙박요금	99 USD, 1박 기준 (싱글/트윈 동일가격, 세금 미포함)
참 고	◆ 조식포함 (1층 Jaxx Bistro 식당, 6:00 시작) ◆ 인터넷 : 무료 (Wireless) ◆ 부대시설 : 피트니스, 비즈니스센터, 수영장 ◆ 전압 : 110V (11자형, 어댑터 필요)



❑ 날씨

9.13 (수)	9.14 (목)	9.15 (금)	9.16 (토)
			
22℃ 14℃	23℃ 13℃	25℃ 14℃	24℃ 14℃

○ 시카고 지역 9월 평균기온 : 23°C ~ 14°C

○ 옷차림 정보 : 대체적으로 따뜻한 편이나, 일교차가 심하여 여분의 옷과 우산 지참을 장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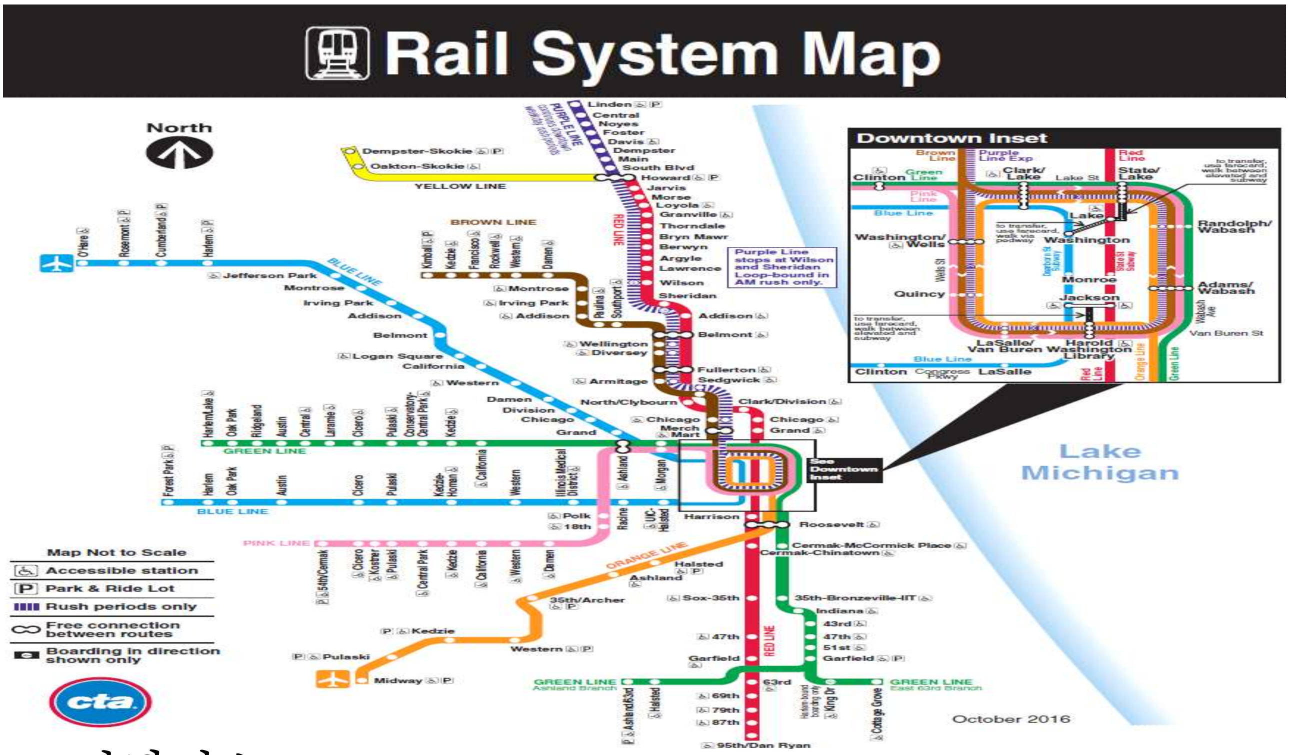
❑ 교통

○ 공항 : O'Hare International Airport (국내 /국제선)

- 시카고 최대 국제공항: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5번 터미널
- 택시: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약 30-40분 소요, 요금은 $24불(고정요금)
- 지하철: 블루라인 트레인 시카고 다운타운까지 연결되며, 가격은 $2.50

○ 대중교통

- 시카고의 지하철은 다운타운을 비롯한 시카고시 전역을 연결
- 지하철 및 버스 운임은 거리에 상관없이 2.25불로, 여행자들에게는 하루 동안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1일 사용권이 있으며 지하철과 버스를 동시에 이용 가능
- 버스 및 지하철 노선도는 버스 안, 지하철역 구내, 공항 안내데스크에서도 구할 수 있음
- 택시의 경우 시간, 거리 병산제로 기본요금은 3.50불, 0.25 마일당 0.5불 추가, 정지시간 30초당 0.5불 추가,



❑ 관광명소

Lake Michigan | 미시간호수 Museum of Campus | 박물관 캠퍼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중하나로 시카고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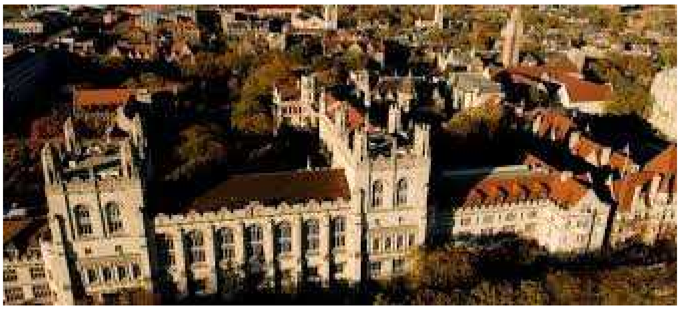
Architecture Boat Tour | 건축물 보트투어
시카고 시내 강을 따라 유명한 건축물을 둘러보고, 미시간 호수까지 다녀오는 투어보트. (투어소요시간 90분/티켓 $46)

Millennium Park | 밀레니엄 파크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장소로 시카고의 녹지 조성을 위한 장기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공원이다. 호수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 야외 공연장이 있어 클래식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공원 중심에는 Cloud Gate라는 거대한 조각이 있다. 이것은 콩처럼 생겼다고 하여 The Bea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시카고에 위치한 Shedd Aquarium (8,000여종의 어족류를 보유한 수족관, 애들러 천문관 (미국 최초로 만들어진 천문관), 자연사박물관이 모두 함께 위치한 박물관 캠퍼스. 미시간 호수와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시카고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진을 찍는 핫 스폿으로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찾는 곳이다.

The University of Chicago | 시카고대학교



1892년 설립된 사립 대학교로 US News 발표에 의하면 2017년 미 전국 대학순위에서 3위 기록. 다수의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 대학교이다.

❑ 맛집/식당 정보

이태리/햄버거

Eataly | 잇탈리

Volare | 볼레르

Shake Shack | 쉑쉑버거

Epic Burger | 에픽버거

시카고 스테이크 TOP3

Benny's Chop House | 베니스 찹 하우스

The Capital Grille | 캐피탈 그릴

Chicago Chop House | 시카고 찹 하우스

딥디쉬 시카고 피자

Lou Malnatis | 루 마날티

Giordano's | 지오다노스

Uno Chicago Grille | 우노 시카고

아시안 음식

Lao Sze Chuan | 라오스촨

Star of Siam | 스타 오브 시암

한국식당

아줌마 앞치마 | 312-326-2800
218 W. Cermak Rd. Chicago, IL 60616

조선옥 | 773-549-5555
4200 N. Lincoln Ave. Chicago, IL 60618

부일갈비 | 773-588-3112
3346 W. Bryn Mawr Ave. Chicago, IL 60659

간단한 점심 또는 식사

Corner Bakery Café | 코너베이커리

Panda Express | 판다 익스프레스

커피/디저트

Intelligentsia Coffee | 인텔리젠시아 커피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중에 하나인 시카고 원조커피

Sprinkles Cupcake | 스프링클스 컵케이크
시카고 컵케이크로 촉촉하면서 다양한 케이크를 만나볼 수 있다.
50 E Walton St, Chicago, IL 60611

Garrett Popcorn | 가렛팝콘
시카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수제 팝콘

Starbuck |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어디든 가까운곳에 있으니 추위를 피해 쉬거나 혹시 화장실이 급하다면 스타벅스 위치를 찾아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 쇼핑 정보

슈퍼마켓 / 한국마트

Target | 타겟

Trader Joe's | 트레이더 조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유기농 제품 판매

Wholefoods | 홀푸드
유기농 전문 마켓으로 가격대는 다른 마켓보다 높은 편. 샐러드와 간단한 음식으로 구성된 뷔페있음

Walgreens | 월그린
마트보다는 편의점에 가까워 생필품과 간단한 의약품 구매 가능

중부시장
작은 규모의 한국 마켓.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차로 25분 거리에 위치해있음

H마트
한인타운 나일즈에 위치해 있는 큰 규모의 한국마켓으로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음

시카고 시티

North Michigan Ave | 미시간 애비뉴
미시간 애비뉴를 따라 여러 가게들과 명품가게들이 있음

백화점

Nordstorm | 놀드스톰
Macy's | 메이시스
Bloomingdales | 블루밍데일스

가구, 생활용품

Crate&Barrel | 크레이트 앤 배럴
Room & Board | 룸 앤 보드

시카고 외각 (공항주변)

Fashion Outlets | 패션 아울렛
5220 Fashion Outlets Way, Rosemont, IL 60018 (*다운타운에서 40분 소요)

Chicago Premium Outlets | 시카고 프리미엄 아울렛
1650 Premium Outlet Blvd, Aurora, IL 60502 (*다운타운에서 60분 소요)

❑ 출입국 정보

○ 입국 절차

- 직항편 탑승 시에는 당해 공항 최초의 도착 시에서 입국 수속을 하고 있다. 입국심사 (Immigration and Customs)는 여권을 제시하여 여권의 비자 페이지에 스탬프를 찍고, 출입국 신고서의 반을 붙이면 입국수속이 완료된다. 입국 시에는 반드시 체제주소를 기입해야 하므로 출발 전 반드시 투숙 호텔이나 방문인사 주소를 휴대해야 한다. (I-94, I-94W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양식 작성은 폐지)

- 입국 심사대는 외국인 전용 심사대와 미국시민 전용 심사대로 나뉘어져 있다. 여행객의 경우, 외국인 전용 심사대 에서 이민국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과 출입국 신고서 (기내에서 작성), 세관신고서를 제출한다.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입국 시 10개 손가락의 지문을 찍으며 아울러 눈동자 사진을 찍어야 한다.

- 무비자 입국 또는 미 대사관의 비자를 받았으나, 최종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은 이민국의 재량으로 결정 된다. 체재 일수, 장소와 입국 목적 등을 묻는 심사관의 질문이 끝나면, 사진 촬영과 함께 왼손,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지문 채취가 이루어지고, 입국 스탬프를 찍은 여권, 출입국 신고서 반쪽, 날인한 세관신고서를 돌려준다.

- 입국 심사대를 빠져 나오면 수하물을 찾는 장소(BAGGAGE CLAIM AREA)로 가서 짐을 찾아 통관 수속을 밟는다(신고서의 남은 반쪽 필요).

- BAGGAGE CLAIM AREA에서 수하물을 찾은 후, 세관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여권과 세관 신고서를 제시하고 수하물의 검사를 받게 되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용 녹색 램프 검사대로 가면 된다. 신고할 것이 있거나 큰 화물을 가지고 있으면 빨간 줄로 가서 화물검사를 받는다.

- 과세대상 물품이 있으면,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이를 보고 세관 직원이 신고서에 세액을 계산하여 적고 스탬프를 찍어서 돌려 주면, 세관 뒤쪽에 있는 납세 카운터에 가서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대상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발견되면 압류 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 면세 반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비거주자 같은 경우 신변품 이외에, 담배 1보루, 술 1병, 그 외 선물로 총액 200 달러 이내 물품을 면세한다. 또한 거주자인 경우 캐리비안지역과 미국령 이외의 해외 국가에 48시간

이상 체류했을 시 800 달러 이하 면세, 800달러 이상 1800달러 이하 3% 관세 부과, 소지한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세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반입금지품목은 무기류, 마약, 허가 없이 반입되는 모든 고기류, 동물, 과일, 야채, 나무 등의 식물류의 지참을 금하고 있으며, 짚 같은 것도 식물로 간주되므로 포장에 주의해야 한다. 단, 어포류, 멸치, 오징어 등과 김, 미역, 인삼(말린 것), 고추장, 된장, 김치, 젓갈류는 신고만 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 입국장에서 나오면 공항 밖으로 나가, 때와 장소에 알맞은 교통수단을 선택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면 된다. 시내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모를 때도 공항 내에는 대부분 'Ground Transportation' 이라고 하여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가 쓰여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면 된다.

<입국절차>

입국심사 → 수하물 찾기 → 세관검사 & 동식물 검역 → 도착 로비

○ 출국 절차

- 9.11 테러사태 이후 공항의 보안검색이 강화되어 출입국 검색 시 벨트와 신발까지 벗어야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최근 미국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항 근무자 수가 감소해 과거에 비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항에 도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미국의 대도시에는 국제공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공항을 사용하게 될 지 미리 확인해둔다.

- 출국 수속은 먼저 각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미 입국 시 작성했던 출입국신고서의 나머지부분을 제시한다. 카운터의 직원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입국신고서를 회수한 후 탑승권을 주는 것으로 출국수속은 완료된다.

- 부칠 짐이 있을 때는 이곳에 맡기고 수하물표를 받는다. 탑승수속이 끝나면 탑승권에 적혀 있는 탑승 시간과 게이트를 확인한다. 별도의 출국심사 없이 탑승구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보디 체크와 보안 검사를 받는다. 면세 쇼핑은 비행기 출발 40분 전에 구입이 마감된다. 탑승은 비행기출발 20~30분 전에 시작되므로, 그 시간 전에 게이트 앞에 도착한다.

<출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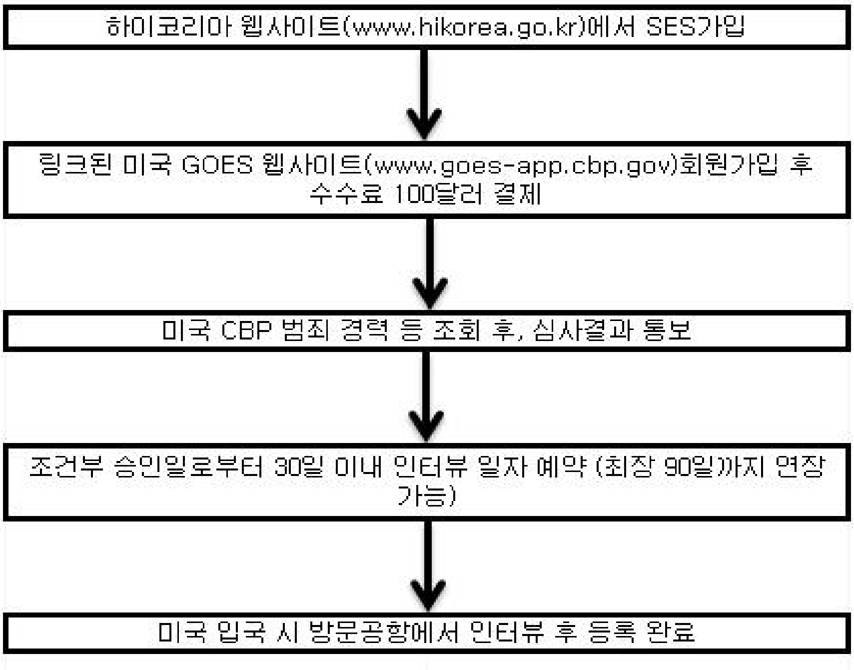
탑승수속 & 출국수속 → 보안검사 → 탑승

○ **한미 상호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시행**

- 2012년 6월 13일부터 미국 방문시 방문자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출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의 대면 심사 없이 미국 출입이 가능한 자동 출입국심사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 무인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가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한 후 미국 방문 시 해당 등록센터에서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자동 출입국 신청/심사 절차>



❑ 기타 생활정보

○ 전화 사용 방법

- 국제전화: 011+82(국가코드)+2(지역코드)+전화번호
  예) 서울: 011+82+2+826-0900

- 시외전화 1+312(지역코드)+826-0900(전화번호)
  예) 시카고: 1+312+826+0900, LA : 1+323+954+9500

- 수신자 부담 국제전화: 1-800-collect
  ※ 시내, 시외, 국제전화요금이 매우 비싸므로, 시카고 도착시 AT&T 또는 한국 Calling Card(선불카드)를 한국 슈퍼마켓에서 구입 후 전화하는 것이 절약 됨

○ 팁 (Tipping)

- 식당을 이용할 경우 통상 총 청구금액의 15%(점심)~20%(저녁)이 적절하며 택시 이용 시에는 10%, 공항이나 호텔에서 포터를 이용할 경우 짐 1개당 1불이 적당한 수준이며 호텔 방에서는 통상 1박당 1-2불의 팁을 베개 밑이나 침대위에 지불

○ 흡연

- 시카고의 모든 식당, 술집은 법으로 금연구역 지정

II. 미국 개황

1. 국가 개요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미주대륙 북부
면적	9,372,610km2 (농지 47%, 산지 29% /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기후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조건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구	3억 2,538만 1,949명(2017년 7월 6일 기준 추정치) (U.S. Census Bureau, www.census.gov/popclock)
주요 도시	New York(854만 명), Los Angeles(398만 명), Chicago(270만 명), Houston(230만 명), Philadelphia(157만 명), Phoenix(161만 명), San Antonio(149만 명), San Diego(141만 명), Dallas(132만 명), San Jose(102만 명)(U.S. Census Bureau, 2017년 7월 기준)
민족	백인(76.9%), 흑인(13.3%),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7%),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 이상 인종(2.6%)(주: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돼 집계됐는데, 히스패닉 인구만 별도로 계산하면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6.3%)(U.S. Census Bureau, 2016년 7월 기준 추정치)
언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종교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불교(0.7%), 이슬람(0.9%), 힌두교(0.7%), 토착신앙(0.3%), 기타(1.5%), 무교(22.8%) (http://www.pewforum.org/religious-landscape-study/, 2016년 12월 기준)
건국(독립)일	1776. 7. 4 (13개 주 독립선언일)
정부형태	연방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실권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의회	상·하 양원제 - 상원: 100석(임기 6년) / 하원: 435석(임기 2년)
주요 정당	- 공화당(Republican Party) - 민주당(Democratic Party)
국가 표어	“우리는 神을 믿는다”(In God We Trust)

* 자료원: U.S. Census Bureau (미 통계청)

2. 주요 경제지표

GDP	19조 500억 달러(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7년 3분기 기준)
GDP 1인당	5만 1,954달러(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7년 1분기 기준)
실업률	4.5%(2017년 1~5월 평균,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1.90%(2017년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2.4%(2017년 5월,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화폐단위	미 달러(U$)
환율	US$ 1 = KRW 1,157.38(2017년 7월까지 평균, Bank of Korea)
부채	20조 4,925억 달러(2017년 12월 19일 기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direct.gov/NP/debt/current)
외환보유고	1,212억 4,000만 달러(2017년 11월 17일,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IR-Position/Pages/default.aspx
산업구조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년 2분기 기준) - 금융·부동산(20.8%), 전문서비스(12.8%), 제조업(11.5%), 교육/의료(8.4%), 도소매(5.9%),정보통신(4.8%), 건설(4.3%), 문화서비스(4.1%), 교통(3.1%), 광업(1.7%), 전력(1.5%), 기타 서비스(2.2%), 정부 부문(12.8%)(자료원: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교역규모	- 2017년 3분기 상품분야: (수출) 1조 5,441억 달러, (수입) 2조 3,452억 달러, (무역수지) 5,341억 달러 적자 - 2017년 3분기 서비스분야: (수출) 8,018억 달러, (수입) 5,348억 달러, (서비스수지) 2,034억 4,000만 달러 흑자(2017년 10월,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교역품	- 주요 수출품목: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항공우주 등 - 주요 수입품목: 석유화학,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등 (World Trade Atlas)

* 자료원: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ata
* (미 노동통계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미 재무부), U.S. Census Bureau(미 통계청), World Trade Atlas

III. 일리노이 개황

- 일리노이 주는 교통, 농업, 그리고 제조업의 중심지이다. 또한 해당 주는 오대호 중 하나인 미시건 호수를 끼고 미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세 번째 규모의 도시인 시카고가 위치해 있다.

- 미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징으로 인해 항공,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망이 잘 발달해 있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이며 농업, 금융업,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 최고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리노이 25세 이상 인구의 87.9%의 인력이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전체 노동인구의 거의 절반이 전문직, 전문 기술직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560만 명의 노동인구 중 절반 이상인 360만은 시카고에서 사무직, 행정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일리노이 개요

주명	일리노이 (Illinois)
위치	오대호 중 하나인 미시건 호수를 끼고 미 중서부 지역에 위치
면적	약 69만 ㎢ (26만 평방마일),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약 7배
주도	스피링필드 (Springfield)
인구	12,802,023명 (2017년 7월) 미국 州 중 5위 (1위 캘리포니아, 2위 텍사스) 한인인구 5만 9천명(2015 American Community Survey)
주요 도시	Chicago, Springfield, Aurora, Rockford, Joliet
지역 내 총생산 (GDP)	USD 8,124억 (2017년 2분기) 미국전체 GDP의 4.2% (미국 州 중 5위)
일리노이 교역	USD 1,779억 (2017년 8월) (수출 USD 561억, 수입 USD 1,218억)
한-일리노이 교역	일리노이 수입 40.6억 달러 일리노이 수출 USD 11.02억 달러
주지사	브루스 라우너 (Bruce Rauner)

* 자료원: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ata

2. 중서부에 위치한 물류허브

-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자랑하는 일리노이는 동서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를 통해 주변 주들과 사업하기가 용이해 상업용 차량 제조업과 트럭 운송업이 발달하였다.

- 최근 Union Pacific이 Global Ⅲ 복합 수송 시설을Rochelle에 짓게 되어 하루 25개 이상의 기차로 3,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 중 하나인 O'Hare공항, 그보다 규모는 작으나 마찬가지로 교통의 중심이 되어온 Midway공항, 그 외에도 840개의 항공 시설을 통해 150만 톤의 화물과 6백7십만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일리노이로 들어오고 있다.

- 또한, 대서양과 멕시코만, 그리고 오대호를 통해 캐나다를 잇는 1,118마일의 수로가 일리노이주에 접해있거나 통하고 있는 내륙의 항공과 육상을 포함한 모든 교통망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일리노이주 물류망 및 인프라 현황>

트 럭 운 송	미국 트럭운송의 50%(41만7000건/일), 全미국을 5일로 커버
철 도 운 송	유일하게 철도 전라인(6개)이 통과하는 Rail Hub, 미국 철도화물의 50% 차지
항 공 운 송	세계 최대의 항공화물 허브(연간 16억 톤), 全미국을 4시간으로 커버
물 동 량	홍콩, 싱가폴에 이은 세계 3위(연간 1200만 평), LA와 Long Beach 합계의 1.3배
물 류 단 지	세계 최대 물류단지 입지(1400만 평)
내륙수로운송기지	미시간호에 두 개의 내륙항구(연간 2600만 톤)

* 자료원: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3. Fortune 500 美 기업중 36개 소재 (2016년 매출액 기준)

- 일리노이 주에는 항공, 기계, 유통, 식품 관련 대표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소재하 있음. 특히 세계 최대 항공기 생산업체인 보잉, 유통업체인 시어스, 미국 최대 드러그스토어인 월그린,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일리노이주 본사 소재 주요 기업>

회사명	Fortune 순위(2017)	매출액(억만 달러)
Walgreens Boots Alliance	17	117
Boeing Company	24	94
State Farm	33	76
Archer Daniels Midland	45	62
Caterpillar	74	38
United Continental Holdings, Inc.	83	36
The Allstate Corporation	84	36
Exelon Corporation	89	31
Mondelez International, Inc.	109	25
AbbVie Inc.	111	25

* 자료원: Fortune 500 2017

Ⅳ. 미국 경제동향

1.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 : 민간소비 둔화에도 투자심리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 지속

○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1.4% 전기(2.1%) 대비 성장률이 약화됐으나 잠정치(1.2) 대비 상향조정됐다.

○ 1설비, 구조물 등 비주거용투자(10.4%)와 주거용 투자(13.0%)의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소비(1.1%)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정부지출이 감소(-0.9%)를 보인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민간소비는 연초 따뜻한 날씨에 따른 에너지 수요 둔화, 소득세 환급 지연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3월 이후 반등했다. 소비심리지수는 1월 98.5 기록 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실질소비 증감률: -0.3(1월)→0.0(2월)→0.6(3월)→0.2(4월)→0.1(5월)

*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
98.5(1월)→96.3(2월)→96.9(3월)→97.0(4월)→97.1(5월)→95.1(6월)

○ 민간투자는 설비 구조물 등 비주거용 투자와 주거용 투자 모두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 2017년 1분기 순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 달러화 강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수출이 수입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소폭 플러스로 전환됐다.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기대비, %)

경제지표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 GDP 성장률	1.6	0.8	1.4	3.5	2.1	1.4

* 주: 분기는 전기비 연율 또는 월평균(지수), * 미시간대학 기준, ** 컨퍼런스보드 기준
* 자료원: BEA, 센서스국, 미시간대학, 컨퍼런스보드, 미국공급관리자협회, 세이트루이스 연준 등

❑ 고용 : 호조 지속

○ 2017년 상반기 미국 고용 상황은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에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시간당 평균임금도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연준의 장기균형실업률(4.6%)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요 고용지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 (만 명)	21.6	23.2	5.0	20.7	15.2	22.2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	0.2	0.3	0.1	0.2	0.1	0.2
실업률(%)	4.8	4.7	4.5	4.4	4.3	4.4
경제활동참가율(%)	62.9	63.0	63.0	62.9	62.7	62.8

* 주: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와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은 전월 대비
* 자료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 물가 : 상승 기조 둔화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은 2월 연준의 장기목표치(2%)를 소폭 상회했으나 3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3월 이후 상승세 둔화되고 있으며 5월에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소비자 물가지수표>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2.5 (0.6)	2.8 (0.1)	2.4 (−0.3)	2.2 (0.2)	1.9 (−0.1)	−

* 주: 괄호 안은 전월 대비 상승률
* 자료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 주택시장 : 주택가격 상승에도 완만한 회복세 유지

○ 기존 주택 판매는 3월에 지난 10년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공급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유지했다. 신규주택 판매량도 지난 3월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큰 폭 증가를 지속했다.

<주요 주택시장 지표 증감률>

(단위 : %)

구분	1월3	2월	3월	4월	5월	6월
기존 주택 판매	3.3	−3.9	4.2	−2.5	1.1	−
신규 주택 판매	9.3	2.7	4.7	−7.9	2.9	−

* 주: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대비 상승률
* 자료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 금융시장 : 경기호조, 친기업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조 유지

○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방 준비은행이 2017년 3월과 6월 각각 0.25% 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결과 2017년 6월 말 기준 0.75~1.00%를 나타내고 있다.

○ 미국 장기국채수익률은 3월 연준의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미국 정부의 세제개혁 및 인프라 투자 지연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유로지역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을 보였다.

○ 주식시장은 연초 기업실적 호조, 신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으나 3월 이후 친기업정책 지연,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금융시장 주요 지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기준금리(%)	0.25−0.50	0.25−0.50	0.50−0.75	0.50−0.75	0.50−0.75	0.75−1.00
장기국채수익률(%)	2.43	2.42	2.48	2.30	2.30	2.19
주가	19864.09	20812.24	20663.22	20940.51	21008.65	21349.63

* 주: 장기국채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 이자 월평균, 주가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월말 기준
* 자료원: 연방준비은행, 다우존스, 한국은행

2. 경제 전망

○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경제 회복, 양호한, 경제 심리, 금융시장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미국 경제는 2016년 보다 확대된 2% 초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외 수요 증가, 감세 및 규제 완화 등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경기개선과 가계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주택구매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설비투자와 주택투자가 2017년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감세 지연과 친기업정책 후퇴 가능성, 모기지 금리 인상은 투자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금리는 하반기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요 투자은행들은 12월 인상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하반기 자산보유 축소 개시를 예고함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구분	2017년	2018년
IMF	2.3	2.5
World Bank	2.1	2.2
OECD	2.1	2.5
Federal Reserve	2.1-2.2	1.8-2.2
Barclays Capital	2.1	2.3
BNP Paribas	2.3	2.6
BoA-Merrill Lynch	2.1	2.1
Citi	2.2	2.6
Credit Suisse	2.1	2.3
Goldman Sachs	2.1	2.2
JP Morgan	2.2	1.8
NoMura	2.2	1.9
UBS	2.2	2.2
투자은행 평균	2.2	2.2

* 주: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
* 자료원: 각 기관 및 언론보도

V. 일리노이 경제동향

1.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한국→일리노이 수출	47	51	40.6	58.2
한국→일리노이 수입	9.1	9.6	11.02	12.32

* 자료원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7년 12월 21일 확인정보)

2. 2016년 일리노이 주 5대 수출입 산업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입 산업 - 총 53.37%	수출	수입
1	산업 기계류	11,438	27,628
2	전기 기계류	8,456	18,352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4,963	15,315
4	정밀 기계류	3,808	5,056
5	석유 및 광물 연료	3,291	4,626
	산업 총계	59,808	121,558

* 자료원: USA Trade Online Data (2017년 12월 21일 확인정보)

3. 일리노이 주 국가별 수입 현황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1	중국	25,784	29,504	31,236	30,218	-3.3
2	캐나다	39,880	45,487	29,626	25,317	-14.5
3	멕시코	11,675	13,442	13,233	11,727	-11.4
4	일본	7,925	7,697	7,101	9,825	38.4
5	독일	4,610	5,093	4,068	5,818	43
6	한국	4,928	5,379	4,577	4,977	8.7
7	베트남	1,362	2,318	2,690	2,796	3.9
8	대만	1,843	2,006	1,901	2,590	36.2
9	아일랜드	1,499	1,671	1,786	2,159	20.9
10	영국	2,182	2,157	2,224	2,151	-3.3

* 자료원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7년 12월 21일 확인정보)

Ⅵ. 미국 수출입동향

1. 미국 수출동향

❏ 2017년 1~4월 수출동향

○ 미국의 2015년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1조 5,04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까지 5년 연속 증가한 추세에서 큰 폭의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침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2016년 들어서도 미국의 상품 수출은 1조 4,5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동기간 대비 3.4%의 감소를 기록했지만 2017년 들어서는 달러의 약세로 수출이 4월까지 전년도 대비 약 6.7% 증가했다.

<미국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월)
수출	1,578,439	1,620,532	1,504,597	1,451,010	496,421
증감(%)	2.1	2.7	△7.2	△3.4	6.7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미국의 2017년 1월~4월 5대 수출 품목 중 항공 및 우주 제품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5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4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 특히 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8.14%의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으며 기계류(0.21%), 전기·전자기기(2.77%), 자동차 및 부품(3.46%)도 증가했다.

<미국 5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	2015년 수출액	2016년 수출액	2017년 1~4월 수출액	2016년 비중	2017년 (1~4월) 비중	2017/2016 (1~4월) 증감률
1	기계류	205,821	190,634	64,367	13.14	12.99	0.21
2	전기·전자기기	169,755	167,123	54,074	11.52	11.19	2.77
3	항공 및 우주	131,091	134,769	40,414	9.29	8.14	△3.56
4	자동차 및 부품	127,114	124,564	41,775	8.59	8.42	3.46
5	유류 및 석유화학	106,143	93,701	42,225	6.46	8.51	58.14
총 수출액		1,504,597	1,504,597	1,203,565	100.00	100.00	6.67

* 주: 순위는 2016년 실적 순임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2017년 1~4월 주요 10대 국가에 대한 상품 수출실적은 아래와 같다. 특이할 점은 캐나다의 수출 비중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멕시코와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증가했다.

○ 10대 국가로의 수출은 영국(3.12% 감소)과 벨기에(8.47%감소)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7년 1~4월 대 한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71% 증가했다.

<미국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5년 수출액	2016년 수출액	2017년 1-4월 수출액	2017년 1~4월 비중	2017/2016 1~4월 증감율
1	캐나다	280,017	266,797	89,448	18.02	2.54
2	멕시코	236,377	229,701	77,565	15.63	3.85
3	중국	116,186	115,602	39,335	7.92	16.18
4	일본	62,472	63,236	22,004	4.43	11.62
5	영국	56,353	55,288	17,796	3.59	△3.12
6	독일	49,947	49,363	17,130	3.45	4.66
7	한국	40,076	42,309	15,729	3.17	23.71
8	네덜란드	43,499	39,690	14,131	2.85	8.75
9	홍콩	34,115	34,894	14,014	2.82	29.43
10	벨기에	37,115	32,097	9,945	2.00	△8.47
총 합계		1,504,597	1,451,010	496,421	100.00	6.67

* 주: 순위는 2016년 실적 순임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 미국 수입동향

❑ 수입 동향

○ 미국의 2017년 1~4월 총 상품 수입액은 7,36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7.24% 증가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이런 증가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간 수입액 및 증감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4월)
수입액	2,276,267	2,268,370	2,347,685	2,241,664	2,187,804	736,323
증감률	3.1	△0.3	3.5	△4.5	△2.7	7.24

* 주: 2017년 실적은 1~4월간의 수치임.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품목별 수입동향

○ 2017년 1~4월 미국의 용도별(end-use)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철강, 목재, 플라스틱 등의 산업소재 및 소비재와 자본재 품목들이 전년동기대비 수입이 각각 26.7%, 3.6%, 5.2%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다른 품목들도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자동차 및 부품이 3.4% 증가했고, 식품 및 음료 또한 7.1% 증가했다.

<2017년 1~4월 품목별 미국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총	식품 및 음료	산업소재	자본재	자동차 및 부품	소비재	기타
수입액	779,319	45,014	171,847	204,257	120,830	200,680	30,262
증감률	8.2	7.1	26.7	5.2	3.4	3.6	2.3

* 주: 2017년 1~4월간 실적임.
* 자료원: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 주요 수입 품목

○ 2017년 1~4월 미국의 용도별(end-use)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철강, 목재, 플라스틱 등의 산업소재 및 소비재와 자본재 품목들이 전년동기대비 수입이 각각 26.7%, 3.6%, 5.2%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다른 품목들도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자동차 및 부품이 3.4% 증가했고, 식품 및 음료 또한 7.1% 증가했다.

<2017년 1~4월 품목별 미국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총	식품 및 음료	산업소재	자본재	자동차 및 부품	소비재	기타
수입액	779,319	45,014	171,847	204,257	120,830	200,680	30,262
증감률	8.2	7.1	26.7	5.2	3.4	3.6	2.3

* 주: 2017년 1~4월간 실적임.
* 자료원: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 2017년 1~4월 미국의 총 상품 수입시장에서 자본재와 소비재가 각각 26%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산업소재 22%, 자동차 및 부품 16%, 식품 및 음료 6%, 기타 4%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2017년 1~4월 미국 5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	2015년 수입액	2016년 수입액	2017년 수입액	2017년 비중	2017/2016년 증감률
1	전기전자기기	327,638	330,875	105,195	14.29	6.38
2	기계류	322,174	308,888	103,947	14.12	4.50
3	자동차 및 부품	279,288	280,691	94,296	12.81	3.15
4	유류 및 석유 화학	191,068	153,891	65,168	8.85	56.74
5	의약품	85,568	92,040	31,836	4.32	4.73
총 합계	2,241,664	2,187,804	736,323	100.00	7.24	△2.1

* 주: 순위는 2017년 4월까지 실적 순임.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미국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

○ 2017년 주요 10대 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실적은 아래와 같다. 특이할 점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이 2014년에는 8위로 전체 수입의 2.00%를 차지했으나 유가 하락으로 2016년 전체 수입의 0.77%에 지나지 않아 10대 수입국에서 제외됐다.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17년 2.1% 소폭 하락했지만 점유율은 3.2%로 유지했다.

<2017년(1~4월) 미국의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5년 수입액	2016년 수입액	2017년 1-4월 수입액	2017년 1~4월 비중	2017/2016 1~4월 증감율
1	중국	462,618	145,816	21.2	19.8	7.2
2	멕시코	294,055	100,603	13.4	13.6	5.5
3	캐나다	277,755	98,173	12.7	13.3	9.7
4	일본	132,046	44,601	6.0	6.1	4.1
5	독일	225,099	37,185	5.2	5.1	△0.9
6	한국	69,881	23,620	3.1	3.2	△2.1
7	영국	54,272	17,376	2.9	2.4	△0.3
8	아일랜드	45,527	16,933	2.1	2.3	22.1
9	이탈리아	45,272	15,235	2.0	2.1	6.9
10	인도	46,032	15,140	2.1	2.1	0.7
총 합계		2,187,804	736,323	100	100	7.24

* 주: 순위는 2017년 4월까지 실적 순임.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Ⅶ. 한국과 미국 경제교류 현황

1. 한-미 교역현황

❏ 한-미 교역 동향

○ 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과의 교역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1.3%의 대폭 하락했다. 경기회복이 시작된 2010년 한-미 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35.3% 증가해 2011년에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양국 간의 교역액은 증가해 2015년에 1,138억 달러, 2016년 1,096억 달러, 2017년 5월 기준으로 미국과의 교역액은 약 492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한-미 교역 동향>

(단위 : 천 달러)

연도	교역액	증감률
2005년	71,928,522	△19.2
2006년	76,837,673	6.8
2007년	82,985,403	8.0
2008년	84,741,393	2.1
2009년	66,689,305	△21.3
2010년	90,218,749	35.3
2011년	100,776,732	11.7
2012년	101,865,521	1.1
2013년	103,564,404	1.7
2014년	115,568,126	11.6
2015년	113,856,533	△1.5
2016년	109,678,241	△3.7
2017년(1~5월)	49,281,002	N/A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

○ 2017년 7월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396억 6,749만 달러로 2016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미 수입은 301억 1,308만 달러로 2016년 대비 22.1% 증가함에 따라 2017년 7월 기준 무역수지가 95억 5,44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과 미국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4년	70,284	13.3	45,282	9.1	25,001
2015년	69,832	△0.6	44,024	△2.8	25,807
2016년	66,462	△4.8	43,215	△1.8	23,246
2017년(1~7월)	39,667	0.1	30,113	22.1	9,554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미국 10大 수출 품목>

(단위 : MTI 4단위, 백만 달러,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7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7411	승용차	15,485	-11.0	9,082	-5.1
2	7420	자동차부품	6,749	-2.8	3,563	-14.1
3	8121	무선전화기	6,466	3.3	2,623	-37.4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1,869	-24.7	1,661	60.7
5	1333	제트유및등유	1,823	-19.9	1,343	25.7
6	6141	철강관	797	-12.5	1,029	192.5
7	8132	보조기억장치	959	36.1	849	79.3
8	3203	타이어	1,440	3.6	798	-3.8
9	7251	건설중장비	784	-23.2	615	20.5
10	8230	냉장고	1,102	0.5	604	-4.8
		총수출액	66,462	-4.8	39,667	0.1

* 주: 순위는 2016년 실적 기준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3 大 수출품목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이 전체 수출의 38% 차지했다.

<한국의 대미국 10大 수입 품목>

(단위 : MTI 4단위, 백만 달러, %)

순번	MTI 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7월)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1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2,082	5.6	3,116	204.0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3,483	-7.2	2,141	-0.2
3	1350	LPG	1,220	65.2	1,213	86.9
4	7411	승용차	1,680	39.5	1,006	6.5
5	7471	항공기	1,367	-30.1	976	6.9
6	0221	가축육류	1,428	13.6	974	19.8
7	7472	항공기부품	2,438	87.2	885	-41.9
8	0136	사료	1,044	2.3	854	112.1
9	2262	의약품	1,124	10.8	611	-7.8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909	-10.8	589	16.3
		총수출액	43,216	-1.8	30,113	22.1

* 주: 순위는 2016년 실적 기준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 한-일리노이 교역현황

❑ 한-일리노이 교역동향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한국→일리노이 수출	47	51	40.6	58.2
한국→일리노이 수입	9.1	9.6	11.02	12.32

* 자료원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7년 12월 21일 확인정보)

❑ 2015년 일리노이 주 한국수입 상위 5대 산업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입 산업 - 총 89.1%	2015 연간 수입	2014년 대비 증감률
1	컴퓨터 및 전자 제품	$2770.0	-28.7%
2	기계	$371.6	-1.9%
3	운송 장비	$178.0	31.6%
4	화학	$156.2	11.6%
5	전기 장비, 기구 및 분대	$147.8	-22.0%
	산업 총계	$4070.0	-20.1%

* 자료원: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2017년 12월 21일 확인정보)

○ 대채로 한국의 대미수출품목 순위와 유사하나 일리노이 산업특성에 따라 기계, 화학 수입이 각각 2,4 위 차지하고 있다.

❑ 일리노이 주 국가별 수입 현황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1	중국	25,784	29,504	31,236	30,218	-3.3
2	캐나다	39,880	45,487	29,626	25,317	-14.5
3	멕시코	11,675	13,442	13,233	11,727	-11.4
4	일본	7,925	7,697	7,101	9,825	38.4
5	독일	4,610	5,093	4,068	5,818	43
6	한국	4,928	5,379	4,577	4,977	8.7
7	베트남	1,362	2,318	2,690	2,796	3.9
8	대만	1,843	2,006	1,901	2,590	36.2
9	아일랜드	1,499	1,671	1,786	2,159	20.9
10	영국	2,182	2,157	2,224	2,151	-3.3

* 자료원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7년 12월 21일 확인정보)

3. 투자동향

❏ 한-미국 투자 동향

<한국 전체 해외직접투자 및 對미국 직접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년 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9,583	28,158	10,272	30,866	10,765	35,249	2,459	10,713
미국	1,549	5,838	1,374	6,983	1,727	12,905	432	6,809

* 주: 신고건수, 신고금액 기준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분야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었다. 총 129억 568만 달러가 이 분야에 투자됐으며, 이는 지난 2014년 58억 3,844만 달러에 비하면 2년 사이 배로 늘어난 것이다.

○ 2017년 1분기 투자금액은 68억 달러(추정치)를 넘어서면서 2017년에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업종별 직접투자액 동향>

(단위 : 천 달러)

순위	업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38,442	6,983,845	12,905,683	6,808,922
2	도매 및 소매업	495,911	560,819	3,973,306	5,103,125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88,341	283,004	317,719	745,383
4	금융 및 보험업	885,661	1,846,678	2,583,402	324,426
5	교육 서비스업	1,724	2,215	2,742	105,393
6	제조업	719,204	838,082	769,307	78,621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71,306	1,804,130	3,625,088	73,654
8	건설업	132,835	64,923	46,316	44,000
9	예술, 스포츠 및여가 관련 서비스업	1,434	2,280	9,652	11,689
1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53,796	380,786	126,123	10,184
11	숙박 및 음식점업	171,887	602,319	483,948	9,454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7,228	14,832	2,686	7,219
13	광업	545,461	54,085	116,802	3,278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976	34,827	18,580	2,500
15	운수업	425,944	43,826	19,301	2,000

* 주: 2017년 1분기 통계는 잠정치임.
*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신고금액 기준, 2017년 7월 14일 기준 최신 자료임.

❏ 한-일리노이 투자 동향

○ 한국은 일리노이 주에서 23번째로 큰 FDI(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이며 한국 기업은 1,110명의 일리노이 주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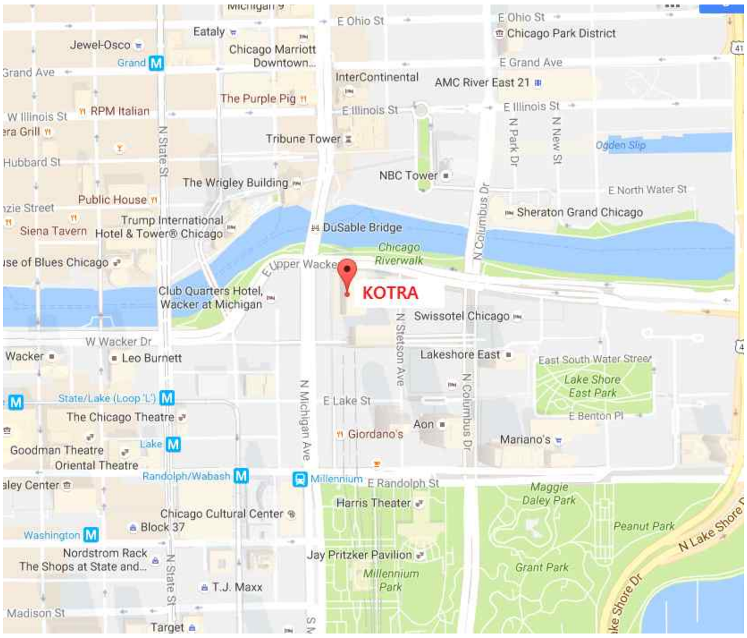
❏ 한국기업 일리노이 진출동향

<일리노이 진출 주요기업 리스트>

업종	기업명
기계·금속	피스코리아, 한광, 화천기계, 와이지원, 디티알, 고려도장기, 피에스엠, 세고스, 수산중공업
전기·전자 부품	삼성전기, LG전자, 에스텍, 퍼시픽콘트롤즈, 마이프리콘시, 씨엠파트너, 삼성전자, 태화트랜스, 클린앤사이언스, 젠테크파워, LG 디스플레이, LS 전선, 기민전자, 명신이엔지, 탑전자산업, 인터내셔날 플랫케이블
기타 제조업	삼송캐스터스, 영화학, 프론틱스, 포나후렉스, 에스이에이에스, 삼원테크
기타	현대상선, 한진해운, CJ, 대한통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삼양사, 석경에이티

VIII. 무역관 안내

■ 시카고무역관



❏ 주소 : 111 East Wacker Dr. Suite 2229, Chicago, IL 60601

❏ 오시는 길

○ 지하철: 레드라인 레이크(Lake St and State)

○ 버스: Wacker Drive and N. Michigan Ave. 하차 (3, 4, 123, 124, 134, 151)

❏ 전화 : 1-312-644-4323 팩스 : 1-312-644-4879

성명	직위	업무	핸드폰 번호
김성수	관장	무역관 업무 총괄	1-312-404-7169
안유석	부관장	마케팅 지원업무 관리	1-773-951-8625

■ 시카고 총영사관

❏ 주소 : 445 N. Cityfront Plaza Dr. NBC Tower #2700 Chicago, IL 60611

❏ 전화/팩스 : 1-312-822-9485 / 1-312-822-9849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